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사채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간제 교사 증가 추이를 중심으로-

장은숙^{1*}, 최승호², 이경은³

¹한국원자력연구원, ²우송대학교 군사학과, ³남서울대학교 교육성과관리부

Effect of neoliberal education policy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teachers

-Focusing on the growth of contracted teachers

Eun-sook Jang^{1*}, Soung-ho, Choi², Gyung-eun, Lee³

¹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²military studies, wooso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Educational Performanc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교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층 재생산을 강화시켰다.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수는 1999년 300명이었던 것이 2005년 1만3,419명, 2009년 2만 3,7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 3만 5,717명, 2015년 4만 2,042명으로 급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원임용 정책은 교원의 양적수급에는 기여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경직된 학교조직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경쟁,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의 계층재생산 기능의 부작용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장에서 교사 수급균형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채용을 통제하고, 비정규직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법제화해야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teachers to assess the impacts of this neoliberal education policy. Neoliberal education policy has led to increased private education cost, and strengthened the function of social stratum reproduction in the education system despite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flexibility. Since contracted employment was applied to the educational field, the number of regular teachers began to decrease, while that of contracted teachers increased. For example, the number of contracted teachers was 300 in the 1990, which increased to 42,042 in 2015.

Neoliberal education policy contributed to teacher's quantitative demand; howe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tracted teachers is ultimately degrading the education quality.

In an education market, the issues of balancing between supply and demand often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ongly control the number of contracted teachers by limiting their contract period. Furthermor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convert a contracted teacher to a regular one must be established.

Keywords :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contracted teachers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Ja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82-42-868-2677 email: 73eunsook@gmail.com

Received August 25, 2016

Revised (1st January 26, 2017, 2nd February 2,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의 교육은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성과만을 강조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 교육의 수준을 국가수준 성취평가나 지표로만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성적과 평가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교육은 각 나라가 경쟁에서 우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정책도 많은 국제무대에서 자본의 ‘요구’에 따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TIMSS와 PISA(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같은 국제적 비교로 그들의 교육 대책을 개혁하고 학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1].

1980년대 전후로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경쟁원리를 이념적 기준으로 삼았다[2].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유시장 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시민의 동등한 기회와 권한 부여를 위해 공공성을 행해야 할 교육조차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 간·지역 간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선행연구로는 교육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교사수급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3-5]가 있으며 교사임용정책에서 타당도가 높은 평가 방식 적용과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5], 신자유주의입장에서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1,6,7]등이 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8-11].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기간제 교사 수의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혀서 시장경쟁 원리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한계와 해결방향을찾는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 임용 및 기간제교사의 임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관이 교원임용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과 교육정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기간제교사의 증가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교원임용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감[12]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본론

2.1 신자유주의의 세계관과 교육정책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1990년 전후로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선택, 자유, 수월성이라는 이념적 축을 중심으로 교육의 무한경쟁을 강조한 공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의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경쟁을 통해 교육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1].

1995년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 개혁안을 시작으로 우리교육도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전환되었고, 교육의 기업적 경영철학이 강조되었으며, 학생과 교사를 경쟁의 도구, 상품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민정부에서 사용했던 세계화의 개념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며,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강조되었다.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강조하였고 특히 외국어 교육 강화에 힘써 초등학교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이 증가하였고,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국민 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10].

신인영[13]의 연구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의 교육에의 적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교육 제도를 시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과 소비를 유발함으로써 이윤창출을 지속시키는 자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교육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교육상품은 학력, 학벌, 좋은 성적을 교환한다. 둘째, 학교체제를 변화시키고 교육영역에 유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제정을 감축하고 재정부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Maguire[1]는 이러한 교육에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교사들의 고용을 불안정 시키고, 단순히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시험점수를 위해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되며, 교사

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Ball[14]은 교사들이 새로운 ‘성공’과 ‘수월성’에 의해서 성적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는 경쟁, 수행의 문화에 사로잡혀있다고 말하며, 교사가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맞춘 사업가적 교사로서 ‘가짜’의 감정을 품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2 다른 국가의 교원양성제도현황

2.2.1 일본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일본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면허취득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교원면허는 크게 3가지 면허로 나뉘는데 대학원 석사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면허, 4년제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 1종 면허, 전문대학 졸업을 기본학력으로 요구하는 2종 면허이다. 일본인 경우 고등과정의 교사인 경우 전문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등이하 교사인 경우 인성을 강조한다[15].

2.2.2 미국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미국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교원양성을 제도화하였다. 사범대학과 종합대학 내 교육대학 혹은 교육대학원을 두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주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원임용계약제를 통해 결정된다.

2.2.3 독일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독일에서 교원양성과정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대학에서 교원양성교육을 받고, 1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단계에서 교사후보생은 반드시 2-3개의 복수 전공을 해야 한다. 2단계 양성과정에서는 1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교사후보생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수습근무를 한다. 2단계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로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15].

2.3 우리나라 초·중등교사 임용현황과 기간제 교사 현황

2.3.1 초·중등교사 임용현황

초등 교원 임용 현황과 관련하여 초등교사 신규 채용 현황을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0-,2015)에 의거 교사채용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000년 7,588명의 임용에서 2010년 5,018명으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정규교사의 임용은 10년 동안 약 1,500명의 교원

이 감소했다가 2015년 7,514명이 되었다.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new recruits by year

	National	Public	Private	Total
2000		7,462	126	7,588
2001	1	9,248	99	9,348
2002		5,439	76	5,515
2003		7,700	67	7,767
2004		7,184	79	7,263
2005		6,318	82	6,400
2006		6,130	88	6,218
2007	5	6,326	85	6,416
2008	8	7,802	79	7,889
2009	1	5,780	90	5,871
2010	2	4,916	100	5,018
2011		5,461	77	5,538
2012		6,255	72	6,327
2013		6,536	71	6,607
2014	6	6,148	74	6,228
2015	8	7,404	102	7,514

중등 교원 임용현황은 국·공립 사범 대학교 졸업(예정)자, 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함께 응시하게 되므로 임용 시험 관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Table 2. Present condition of the middle school's teacher new recruits by year

	Secondary School							Total
	General teacher	Special	Counseling	Librarian	Practice	Nurse	Nutrition	
2005	3,092	-	-	2	-	40	-	3,134
2006	4,179	-	-	43	-	58	-	4,280
2007	2,420	-	40	27	1	49	144	2,681
2008	2,980	-	56	18	-	120	277	3,451
2009	2,598	-	-	-	-	86	21	2,705
2010	2,106	-	20	7	-	75	13	2,221
2011	1,658	-	18	3	1	50	9	1,739
2012	1,868	-	11	3	-	46	10	1,938
2013	2,326	-	352	1	-	53	11	2,743
2014	2,825	171	40	6	-	69	7	3,118
2015	2,696	125	38	3	-	101	4	2,967
total	28,748		575	113	2	747	496	30,977

2005-2015년도 교육통계연보(2005-2013년 일반교사 인원에 특수교사포함)에 의거 연도별 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현황을 보면 <table 2>과 같다. 2005년 3,134명이 교사로 신규 채용되고 있으며, 2009년 1,739명, 2015년 2,967명으로 오히려 주는 추세이다. 매년 교사 신규 채용 시험에서 탈락한 교사 취업 희망자들이 누적되어 일반적으로 교과마다 평균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2.3.2 기간제 교사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출산휴가나 선택교과목 등을 위해 학교장이 수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계약제 교원을 의미한다. IMF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 각 부문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종 교육개혁안과 구조조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나이든 교사를 한 명 줄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자유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로 교원의 단축과 명예퇴직이라는 교원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교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런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입(교대학점제),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학 선발제도, 기간제 교사제도 등의 교원 확충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교육통계연감자료[12]에 의하면, 일반계 국·공립 초·중고교의 경우 1999년 300명이었던 비정규직 교원이 2000년에 2,100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23,784 명으로 78배 증가, 2015년에는 41,033명으로 1999년과 비교 시 사립교의 경우에도 2001년 2,666명이었던 비정규직 교원이 2002년 5,8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2002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과 맞물려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명분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라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7.20사업은 증설된 학급에 정규교원 대신 비정규교원으로 대체하였다. 2008년 전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보충인원 5,336명이며, 이는 비정규직 비율로는 83.41%에 이른다[10]. 또한 2001년 906명이었던 국공립 비정규직 교원이 2002년 1,88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09년에는 23,714명에 달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결국 정규교원 대신 비정규교원을 채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비정규직 교사의 급증은 교사의 근무조건, 학생지도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교원 노동관리 유연화정책과 2000년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The regular teachers & Contracted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y year

	Total	A	B	C	D	E	F
2005	380,389	10,111	10,939		76,542	258,374	3,637
2006	388,497	10,310	11,160		78,162	263,448	3,975
2007	395,379	10,376	11,104		78,988	264,405	4,687
2008	403,796	10,525	10,966		79,596	265,892	5,166
2009	409,217	10,631	10,972		80,471	264,998	5,562
2010	411,958	10,745	10,989		80,977	265,514	5,882
2011	422,364	10,866	11,002		81,985	263,326	6,209
2012	425,392	10,937	11,068	1,123	89,284	255,118	6,277
2013	427,689	11,033	11,065	1,530	90,063	253,107	6,272
2014	430,509	11,090	11,055	1,808	91,434	253,033	6,751
2015	428,904	11,167	11,032	1,751	91,590	249,776	7,154

	G	H	I	J	K	L
2005	48	256	200	6,865	0	13,417
2006	17	414	207	7,009	0	13,795
2007	197	532	143	7,050	1,540	16,357
2008	479	645	122	7,192	4,266	18,947
2009	481	652	114	7,210	4,342	23,784
2010	567	682	78	7,231	4,412	24,881
2011	633	702	75	7,369	4,470	35,727
2012	673	689	50	7,410	4,533	38,230
2013	1,483	674	42	7,364	4,563	40,493
2014	1,563	695	42	7,394	4,611	41,033
2015	1,674	700	34	7,321	4,663	42,042

- A: Principal
- B: Vice-Principle
- C: Master teacher
- D: Grade head teacher
- E: General Teacher
- F: Special Teacher
- G: Counseling Teacher
- H: Librarian
- I: Practice Teacher
- J: Nurse- Teacher
- K: Nutrition Teacher
- L: Contracted Teacher

<Table 3>의 한국교육개발원의 2005년-2015년 교육통계연보[12]를 보면, 기간제 교사의 증가 추이를 볼 수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 2005년 13,417명이었던 것이 2010년 24,881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5년 42,042명으로 급증했다.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2006년 5,409명에서 2009년 8,929명으로 65%나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6,820명에서 9,912명으로 45% 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2006년 5.1%에서 8.1%로 늘었으며 고등학교는 5.7%에서 7.9%로 상승했다. 중 고교

교사 100명 중 8명은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다[13]. 정규 교원을 충원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으로 대체 이용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예산절감과 노동통제의 효과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 대체임용은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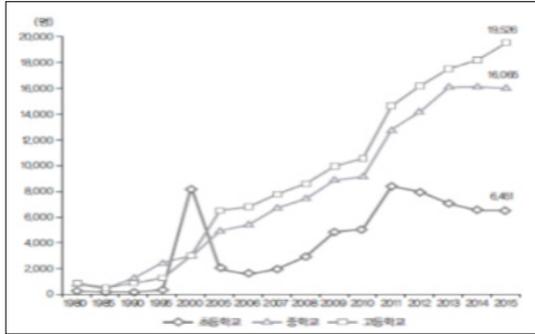


Fig. 1. Increase in progression of the Contracted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y year

2.3.3 기간제 교사운영 및 처우실태

학교 기간제교사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후생을 살펴 보면, 우선 임금체계의 차별성을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받고 있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유아휴직수당,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고 있다. 정규직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성과급지급이 이루어지나, 기간제 교사인 경우 성과상여금이 제외되어 있다 [8]. 둘째, 직종에 맞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인 경우가 11.1%에 이르고, 채용목적과는 다른 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9]. 정규직 교사와의 역할구분에서도 정규직 교사가 핵심업무, 전문업무를 기간제교사가 지원업무, 단순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셋째,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연수나 교육훈련이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받는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8-9].

넷째,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더욱 불안해졌다.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량도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답습 강화했고, 오히려 시장원리와 경쟁을 강화하였다. 학교의 성적 등을 공개함으로써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점수가 학교와 교사의 능력으로 대표하며, 고등학교 입시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회 약자층, 서민층은 오히려 출발선에서조차 도태될 수도 있다.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 모든 과정을 교사중심에서 학생활동중심의 교수학습 평가방법으로 바꿨다.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목표로 자유학기제의 도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불안 및 사교육성장에 더욱 박차를 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교원임용제도에서도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데 일반계 국·공립 초·중고교의 경우 1999년 300명이었던 비정규직 교원이 2009년 23,714 명으로 7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도 42,042명으로 140배 증가하였다. 이는 교사들의 지위 불안정과 연관되며, 교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데 반해 정규직 교사의 감소로 인한 고용불완전을 유발하며 고용구조를 바꾸고 있다. 교육부문의 경우도 다른 비정규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이들 비정규직 교사들은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에서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 임용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교권의 약화 및 불안정함으로 결국 수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바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 제도적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즉, 기간제교사의 임용금지와 역제를 위한 상시고용 및 임용시험의 대폭 개선, 교사양성기관의 전문화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을 비정규교원으로 대체해 비용절감과 유연성을 약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원 임용체제는 단순히 자유경쟁과 시장의 유연화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교사들의 문제이고 교육 전반에 걸친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괄전환 방식보다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효과적인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정규직의 내부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연봉산정 시 공무원에 준하는 연공급으로 제도화시켜야 하며, 단계적 승진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교사들에 대한 호봉승급 인정과 제수당, 후생복지 등의 차이를 없애는 국가교육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또한 바꾸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사임용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수업실기능력의 평가강화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적 자질과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 질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체계적인 인증, 교육양성 기관의 난립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과잉배출을 막고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현행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교원 수급의 불안정과 기간제 교사의 무분별채용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과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은 교원 수급에만 관심이 집중된 임시방편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인 교사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

교육은 시장의 논리, 경쟁의 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쟁의 원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과 이윤추구를 교육에 적용할 수 없다.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특성상 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of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2010.

- [2] C. D. Kang, *A study on ideological limitation of views on neoliberal education in the light of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al of sociology Study, vol. 21, no. 1, pp. 1-23, 2011.
- [3] I. J. Lee, *Evaluation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Korean Language" Subject matter and Directions of Better Revis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Vol. 23, pp. 91-132, 2005.
- [4] K. M. Park, *Developing institutional Linkages between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 Local Board of Education in changing Society*,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2, 2004.
- [5] M. W. Seo,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Educability Based on Educational Indicator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Vol. 20, no. 3, pp. 29-56.
- [6] D.M.Jang. *Explorative Study of Gender Equality in Appoint plan of School teachers on korea Doctorate thesis*. The graduate school, Kemyung university. 2008.
- [7] David. Habby. *Neo-Liberalism Hanul Publishers*, p. 35, 2005.
- [8] C.K.Park. *Implementation practice for Irregular Employee policy and policy task analy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9.
- [9] Y.G.Song. *Research on Actual Cinditions of school Irregular worker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9.
- [10] J.Y.Jung. Korean Daily Report. 'Rapid increase of the Contracted teacher' 2009.
- [11] E.J. Jung. *A Study on neoliberal education refor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0.
- [12]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2005-2015*, M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tatistics Yearbook."
- [13] I. Y. Shin. *A Study on the criticisms of neo-liberal educational reform and the justification of educational publicism logic in korea*, Doctorate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2.
- [14] Michael W. Apple, Stephen J. Ball and Luis Armando Gandin.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2009.
- [15] B.H.Lee. *A Policy on a Recorganization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Education System*. vol. 15, pp. 611-629, 2015.

References

- [1] Mag Magire, *Towards a sociology of the global teacher*,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Sociology

장 은 숙(Eun-Sook Jang)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7년 3월 ~ 2015년 2월 : 충남대, 대전대학원 등 교육학 강의
- 2011년 3월 ~ 2012년 3월 : 대전대 인문영재교육원 연구원
- 2014년 10월 ~ 2015년 2월 : 더키움 교육연구소 대표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터

<관심분야>

평생교육, HRD, 성인교육, 부모교육, 상담

최 승 호(Soung-Ho Choi)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수료)
- 2008년 4월 ~ 2013년 3월 : 육군 리더십센터 리더십, 상담강의
- 2013년 4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군사학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상담, 다문화교육

이 경 은(Gyoung-Eun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2017년 2월 : 충남대, 우송대 등 교육학 강의
- 2011년 3월 ~ 2012년 3월 : 대전대 인문영재교육원 연구원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우송대학교 대학역량강화사업단 사업관리연구원

- 2015년 2월 ~ 2016년 8월 : 배재대학교 교육품질평가센터 연구원
- 2016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육성과관리부 연구교수

<관심분야>

창의성, 영재교육, 지능, 학습상담 및 컨설팅